

완도군, 생활인구 유입 지역 활력 높인다

보고회서 23개 시책 발굴 완료 지역스마트팜·수산 등 자원 연계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 혜택확대 “장기 체류·정주 전환 정책 강화”

전라남도 완도군이 생활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생활인구 활력 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지역 자원을 연

계한 23개의 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생활 인구 유입이 국가 정책의 주요 방점에 포함됨에 따라 정책적 대응과 정주 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인구 기반의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 및 외국인 등록 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로 2023년부터 시행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군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24개 부서에서 치유 관광, 외국인·귀촌 확대, 스마트팜·수산 가공 분야 창업 지원 등 지역 자원과 여건을 연계한 23개의 시책을 발굴·보고했다.

시책은 △청년·신규 귀촌 인구 유입 위한 농지 취득 요건 완화 △계절 근로형 비전문 비자 신설 및 자격 요건 통합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 관련 인센티브 지원 확대 △여객선 야간 운항 사업 확대 △해변공원, 다도해일출공원 야간 경관 개선 △은퇴 의료인 유입·정착 지원 △전국 초등

학교 티볼대회, 크로스핏 전국대회 유치 등이 제안됐다.

군은 발굴된 시책 중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전남도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국·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이범우 완도 부군수는 “생활인구 유입이 지역 활력의 핵심”이라며 “장기 체류와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호혜 있는 정책 실행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무안군, 에어컨 등 냉방용품 지원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7가구

전라남도 무안군은 11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재가의료 급여 대상자 7가구를 방문해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가의료 급여사업은 한 달 이상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돕기 위해 돌봄, 식사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해 대상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7개 협력기관과 함께 식재료 제공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냉방용품 지원과 함께 폭염 대비 행동요령 교육도 함께 진행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도왔다.

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수급자들이 자택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연 기자

운달 기간 화장장 운영 시간 연장 해남군, 내달 25일부터

전라남도 해남군은 운달 기간인 7월25일부터 8월 22일까지 화장장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운달에는 개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장로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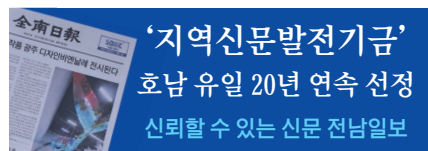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예약은 6월1일부터 인터넷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개장신고증명서를 가지고 남도광역추모공원을 방문하면 예약할 수 있다.

해남, 진도, 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2019년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4기의 화장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봉안당 2동과 자연장지를 갖추고 있다.

유택동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종합 장사시설로 연중 휴무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원 이래 화장 1만9818건, 봉안당 및 자연장 안치 5179건 등이 이뤄져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어려움 없이 운달기간 분묘개장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장사시설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라인장학재단이 11일 신안군 지도읍 소재 신안지도초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79명에 대해 동양에너지와 라인건설 후원으로 모두 237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양에너지 제공

라인장학재단, 신안 지도초 전교생에 2년 연속 장학금 전달

유치원생 5·초등생 74명 등 79명

라인장학재단이 전남 신안군 지도초등학교 전교생에게 2년 연속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아동 지원에 나섰다.

라인장학재단은 11일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소재 지도초등학교 강당에서 유치원생 5명과 초등학생 74명 등 전교생 79명을 대상으로 총 237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동양에너지(대표 이복형)와 라인건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지도초 교장을 비롯해 지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이사장, 지도읍 사회단체장, 동양에너지 관계자, 학생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된 것으로, 지역 아동들에

게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라인장학재단은 “지역 초등학생들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년 지역아동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

전라남도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신안군 가족센터 교류 소통 공간에서 ‘2025 신안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교실_플로리스트 수료 과정’을 개강했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매년 △3월 지도 선도 수선화 축제 △4월 임자 톨립 축제 △5월 안좌 퍼플섬 라벤더 축제 △6월 도초 수국축제 등 29개의 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신안군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 기회로 연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플로리스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총 22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초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진행되며 꽃바구니와 꽃다발 제작, 식물 심기(가드닝) 기법은 물론, 테이블 및 아치 장식, 아크릴·말린 꽃 공예 등 다양한 실습과 함께 창업 아이템 기획 등 취·창업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미영 회장은 “지난해 진행된 플로리스트 교육이 수강생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데 힘입어, 올해는 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더



지난 10일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 직원이 지역 꽃을 활용한 플로리스트 교육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욱 체계화했다”며 “수료 이후에는 신안군의 다양한 꽃 축제와 연계한 소득 활동뿐 아니라, 배움의 성과를 토대로 꽃을 활용

한 재능기부, 취약계층을 위한 정서적 치유 봉사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6월 ‘내돈내산 SNS’ 이벤트 강진군, 수국길 축제 기념

전라남도 강진군이 관내 소상공인 업소 활성화와 홍보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강진군 내돈내산 SNS 리뷰 이벤트’를 제3회 강진 수국길 축제를 기념해 6월 한 달간 특별하게 진행한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 내돈내산 SNS 리뷰 이벤트’는 소비자가 강진군 소상공인 업체 이용 후 SNS에 사진(이용 및 영수증)과 리뷰를 작성하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1건당 5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지난 2024년 1년간 1349명의 참여자가 3150건의 리뷰를 작성해, 강진군 소상공인을 알리고 혜택을 받아 갔다.

제3회 강진 수국길 축제가 개최되는 6월에는 기존 참여 인정 건수를 2건에서 4건으로 늘리고 수국길 축제장 방문 리뷰 중 베스트 리뷰 50명을 선정해 경품으로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강진군 소상공인 업체 이용 또는 구매 사진 및 수국길 축제 홍보 사진(홍보물, 포스터, 현수막 등) 촬영→1만원 이상 영수증 사진 촬영→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사진들을 함께 게시(전체 공개 및 필수 해시태그: #강진맛집 #강진소상공인 #강진내돈내산 #강진가볼만한곳 #강진산호명 #강진수국길축제)→이벤트 참여 신청(네이버폼 <https://naver.me//FLyT6Jh8>) 순서로 참여해야 한다.

이벤트 참여 경품은 참여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리뷰 1건당 5000원씩 최대 4건까지 인정된다. 이벤트 참여 시 지역상품권 차크(chak) 어플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며 필수 해시태그나 영수증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가리고 게시 권장) 등을 유의해야 한다.

강진=김윤복 기자

안토니 곰리 작가 특별 강연 14일 신안군청 대강당

전라남도 신안군은 예술섬 프로젝트 참여작가인 안토니 곰리를 초청해 오는 14일 오전 11시, 신안군청 대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신안군이 추진 중인 ‘예술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작가는 신안군 비금도 원평해변에 설치 예정인 초대형 철 작품 ‘엘리멘탈(Elemental)’과 작가의 작품 철학과 예술적 견해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작가는 지난 2022년 여름 비금도를 방문해 나촌마을의 옛 담장, 신안군의 갯벌과 해변, 숲과 산을 직접 체험하며 작품 구상에 돌입했고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수집해 런던 작업실로 돌아간 뒤 4년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비금도에 설치될 ‘엘리멘탈’은 38개의 큐브 구조물로 구성된 초대형 설치작품으로 ‘휴식 중인 인간의 몸’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작품이 잠기고, 물이 빠지면 관람객이 직접 구조물 사이를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존재를 잇는 상징적 설치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토니 곰리 작가는 “엘리멘탈은 별개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과 장소, 방문객의 경험 그 자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